서혜영展
10.20~11.20 토탈미술관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와는 거리가 먼 장흥의 토탈미술관은 도심에서의 거리감만큼이나 작가들의 심리적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전적으로 자연채광에만 의존해야 한다거나, 층위가 다른 다섯 개의 공간은 마치 퍼즐처럼 끼워 맞춘 독특한 건축구조가 그 자체로서 완고하기 때문이다.

이번이 세 번째인 서혜영 개인전은 그런 전시장의 복잡한 구조를 작업의 틀로서 유용하게 활용한 성공 사례라 할 만하다. 벽돌을 기호화한 검은 직사각의 선 드로잉으로 전시장의 모형을 재구성한 뒤, 이를 근거로 분열과 증식을 거듭하여 다양한 차원의 작업을 전개한 것이다.

근래 들어 서혜영 작업의 모티프가 되는 브릭은 일상 속에서 흔히 물리적 경계의 표지로 파악되는 물체이지만, 작가는 이를 닫힌 고형체로 보는 대신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시각적 통로로서 재인식한다. 닫힌 것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인식 전환은 사물 속에 있는 무형적인 내용, 촉지할 수 없는 무형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자(老子)사상의 영향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기호화한 브릭의 선구성은 곧 면으로, 공간으로 팽창되면서 전시장 전체를 감싸안는 부피감을 만들어 낸다.

전시장 도입부에 걸린 라이트 박스들은 반사유리를 통해 일상공간 이면의 프레임을 가시화했고, 5분짜리 필름작업에서는 한 남자가 어떤 공간을 벗어나는 즉시 다시 그 공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열려 있기도 하고 닫혀 있기도 한, 광장이자 밀실인 삶의 회로를 보여주었다. 반면 반투명천으로 지은 집은 관객의 진입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왜곡됨으로써 브릭의 고정된 형태를 파기하고 더 나아가 브릭너머로 시각을 관통하게 한다. 건물의 상층 공간을 메운 테이핑 작업은 자연채광에 의존하는 전시공간 속에서 해가 뜨고 기우는 자연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확장해 나간 월 드로잉이자, 시간의 차원을 개입시킨 일종의 퍼포먼스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의미한 허공이 호흡과 맥박 등 시간의 차원을 사는 인간 존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부여받는 과정과 비슷하다.

인간 신체의 이면 지지체인 뼈를 형상화한 첫 개인전에서 그것을 사회화시켜 밀실과 광장의 문제를 제기한 2회 개인전에 이어 시간과 공간의 구조로 깊이를 더한 이번 전시에 이르기까지 서혜영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구조와 이면의 구조를 드러내는 일에 일관되어 있는 듯하다.

안소연 · 삼성미술관 큐레이터

〈비워져 있는 빈 공간〉 설치 2001

사진 · 박홍순